

건강 칼럼

단순포진과 대상포진

단순포진(Herpes simplex)과 대상포진(Herpes zoster), 같은 듯 다른 두 질환을 알아보자. 단순포진은 피곤하거나 감기, 스트레스 고열 등으로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저하되어 있을 때 주로 입, 입 주위, 입가 구강 내 점막에 수포 또는 물집이 생기는 질환이다. 그에 반해 대상포진은 신경절을 통해 띠 모양으로 발생하는데 초기에는 통증 또는 감각 이상이 수일간 지속되다가 발진이 발생하고 수포를 보이며 일부에서는 물집이 고름이 생기기도 한다.

대상포진은 신경절을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발진이 몸의 한쪽에만 발생한다는 특징 있으며 주로 몸통을 따라 발생하나 안면부, 머리 및 눈에 생기기도 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원인균이 DNA 바이러스인 헤르페스 바이러스라는 점이고 모두 작은 물집들이 생긴다는 것인데, 차이점은 단순포진은 단순포진 바이러스(herpes simplex

virus)에 의해 발생하고, 대상포진은 어린 시절 앓고 지나가는 수두 바이러스(varicella-zoster)가 신경 세포 속으로 침투하여 잠복상태로 존재하다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저하되었을 때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되어 감각신경을 타고 이동하여 피부에 수포를 일으키는 것이다.

단순포진과 달리 대상포진은 물집이 발생하기 전에 심한 통증이 먼저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단순포진은 입가 및 성기 부위에 발생 하는데 위치에 따라 바이러스의 종류가 다르다. 헤르페스 바이러

스에 의한 것이긴 하나 입가는 단순포진 바이러스 1형(herpes simplex virus 1)에 의해 감염되어 이고, 성기 부위에 발생하는 음부 포진은 입가에 발생하는 단순 포진과는 다른 단순포진 바이러스 2형(herpes simplex virus 2)에 의하여 발생하며 성병의 일종이다. 단순포진 바이러스 2형에 의한 감염은 임신부에게서는 태아에게 전파되어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수뇌막염, 전립선염 및 자궁경부암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으며 1형에 비해 재발률이 약 10배가 높다고



정혜윤

의학박사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알려져 있다.

단순포진은 접촉에 의해 전염되는 질환이지만, 대상포진은 수두를 앓은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염되지 않는 전염성이 없는 질환이다.

대상포진은 건강한 사람에서 재발은 매우 드물지만 면역능력이 저하된 환자에서는 간혹 재발이 되기도 하며, 환자의 10% 정도에서는 대상포진후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라고 하는 합병증이 생긴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피부 병변이 완전히 호전된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현상인데 나이가 많을수록 더 잘 생긴다고 보고되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어 우울증 및 삶의 질의 저하를 가져온다.

단순포진 및 대상포진 모두 DNA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므로 항바이러스제제로 치료하며 수두 예방 접종은 대상포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

독자제언

데이트 폭력 처음부터 적극 대처해야

“나는 사랑이라 부르고, 나는 폭력이라 부른다” 데이트폭력추방 캠페인의 슬로건이다. 최근 교제하던 의학전문대학원 남자 동기생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연인 간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신체적, 성적인 폭력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지만 주로 공격적 성향이 높은 남성과 의존적인 여성이 만날 때 잘 일어난다. 남성은 자신의 분노를 약자인 여성에게 표출하고 여성은 사랑한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인이나 해어진 연인으로부터 살해당한 여성은 총 645명으로 3월에 1명 꼴로 살해를, 상해사건은 하루 평균 7.8건, 폭행은 7.9건, 성폭력은 1.2건씩 발생한다고 한다. 이처럼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인 간 폭력은 그간 당사자

간 문제로 치부·방치되어 왔다. 경찰청은 2월 3일부터 3월 2일까지 1개월 동안 ‘연인 간 폭력’ 이른바 데이트 폭력 대응 강화활동에 돌입한다. 각 경찰서마다 TF 팀을 구성하고 상담 및 수사, 피해자 보호를 체계화하여 종합적으로 적극 대응한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감정은 정말 멋진 경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좋은 감정이 잘못된 방법으로 이어지면 최악의 결말만이 다가올 뿐이다. 어느 날 나를 때릴 차가 때린 연인이 내일 비난해, 사랑한다고 말하더라도 절대 받아 주지 말아야 한다. 소극적인 대처로는 데이트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폭력사건이 발생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꼭 필요하다.

범죄행위를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피해를 키우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폭력은 결코 사랑이 될 수 없다.

설령미남원경찰서도 통지구대경사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혹한과 폭설시 정전피해 줄이려면

올 겨울은 전국적인 한파와 폭설로 인하여 지역 전체가 끔찍 얼어붙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한파는 이번 주에도 계속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큰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특히 비닐하우스 등 시설작물 재배농가 등에서는 불시 정전 시 피해 예방을 위한 점검과 조치가 필요할 전망이다.

한전에서는 정전시간 및 정전구역의 획기적인 단축 및 축소를 위한 배전 자동화시스템 도입, 설비유지 보수 및 무자 확대 등을 통해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기시설물이 야외에 산재해 있어 천둥·번개 등의 자연 재해, 차량 충돌, 수목·조류 등의 접촉 및 고객 구내 설비 불량에 의한 파급효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정전이 발생될 수 있다.

특히 부족한 사유로 전기공급이 중지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큰 고객들은 전기사용 특성에 따라 비상용 자가발전기,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UPS), 정전 경보장치 또는 절상 보호장치(3상 모터) 등 정전 피해 예방 장치를 설치하여 불시에 발생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화해 등 비닐하우스 재배 농가는 버너 송유장치, 송풍기 및 온도 조절장치 가동을 위한 비상발전기를 설치하고, 보온을 위한 석유나 가스난방기기 시설을 갖춰야 한다.

양돈, 젓소 및 양계 사육농가는 송풍기와 급수장치 가동을 위한 비상발전기, 보온을 위한 석유나 가스 난방기기 및 조명을 위한 축전식 비상조명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양어장 및 양식장 등에서 수산물 등을 양식하거나, 수족관 등을 상시 사용하는 고객들은 정전 시 산소공급을 위한 고압 산소통과 양수장 펌프 가동을 위한 비상발전기 등 정전피해 방지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내선설비에 대한 점검을 받고 노후 취약설비 발견 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시 정전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올해는 수퍼 엘리노로 혹한 및 폭설 등이 잦다고 한다. 자식처럼 기른 작물과 생산품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반의 준비를 위해 꼭 살펴볼 때다.

박병규 한전점용지사 고객지원부 차장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사설

전주 한옥 마을 천만 관광객 시대

전북도의 관광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전주 한옥마을의 관광객 수가 괄목할 만하다. 연간 865만 명에 매출액은 1150억 원에 달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이참에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자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 이제 도민들은 전북 관광의 밝은 모습을 조감해볼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저번에 대표 관광지를 선정해 향후 집중적으로 힘을 실어주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밑그림이 잡혀있는 것이다.

전북도가 지난해 말한 관광사업 구상이 다시 생각나는 요즘이다. 2017년까지 2882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던 거 말이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언급했던 6개 분야 사업도 다시 생각나는 요즘이다. 관광지 개발사업, 문화관광 개발사업, 서해안권 개발사업, 지리산권 개발사업, 강변문화관광개발사업, 특정지역 도로건설 사업 등이 바로 그것이다. 각 분야에 수십억 원내지 수백억 원 단위의 거금을 들여서 관광사업을 크게 벌인다고 했는데 지금쯤 그에 대한 초기 성과 보고가 있을 법도 하다.

어쨌든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이다. 현재 도내 관광사업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전주 한옥마을을 관광이다. 본보는 예전부터 사실상 이런 저런 주문을 한 적이 많다. 관광객을 유치함에 있어 과거와 달라야 한다고 말했거나 그것은 아직도 유효하다. 관광 당국 관계자들이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또 그에 대한 홍보도 활발하게 펼쳐야 한다. 예전처럼 홍보를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긴 시일을 두고 작업을 벌여야 한다. 관광사업에도 꾸준한 끈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전북관광은 이제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관광개발 당국에게 주고 싶은 말이 있다. 전북 관광에 대한 열망이 뜨거운 만큼 거이고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야 한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힘을 합쳐서 올해 전주 한옥 마을 관광의 시기를 보여줘야 한다는 주문이다. 천만 관광객 시대를 계기로 도민 모두의 총역량을 체험해보자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이 최고 우선순위다

일자리 창출을 최고 우선순위에 두어야겠다. 전북도는 실제 그런 의지를 가져야 한다. ‘휴수저’나 ‘헬조선’이니 하는 말이 유행된 지도 이제 오래됐다. 그런데 그것은 자조와 비아냥이 수그러들 기세가 아니다. 한국사회 전체가 일자리와 관련하여 병리 현상이 심각한 까닭이다. 부모 세습되고 일자리도 세습되는 판에 어떤 유력 인사들은 일자리 청탁으로 수십 수에 오르고 있다. 두루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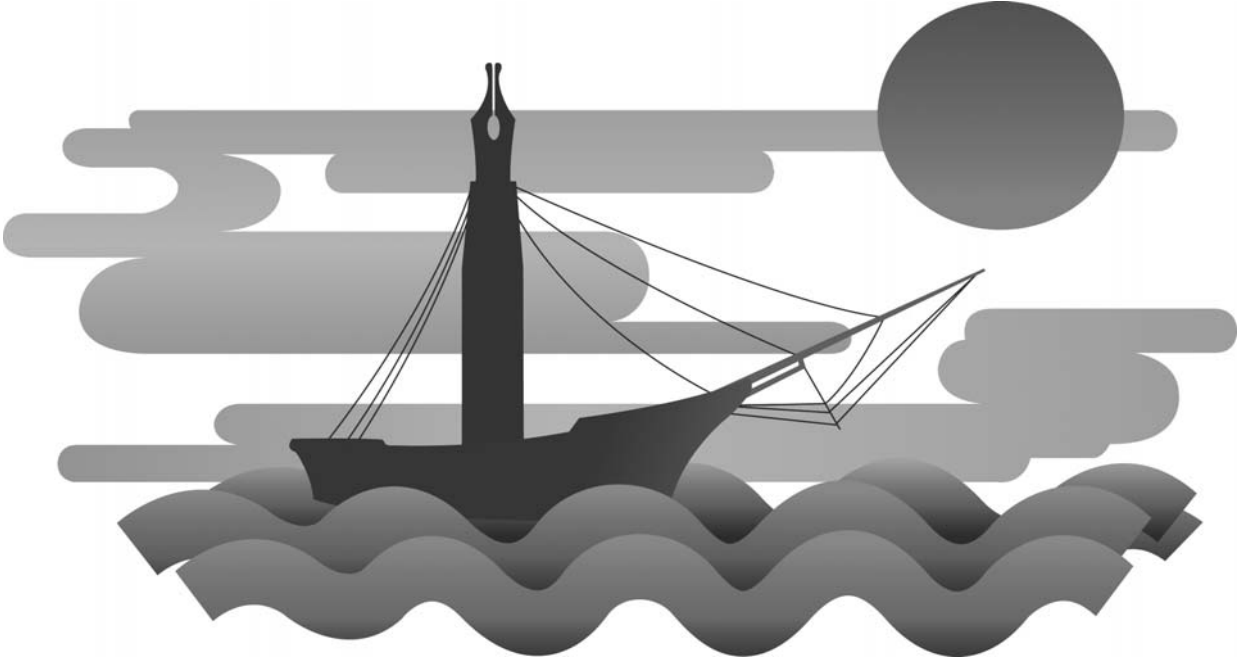
도내 젊은이들 중에는 상경을 했어도 일자리를 못 구해 방황하는 이가 적지 않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매년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로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지방대 출신이라며 처음부터 흠대를 당하고 있으니 난감하다. 설 연휴 때 고향을 찾지 않은 젊은이들이 적지 않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들의 심정을 알만도 하다. 집안 어른들 앞에서 자신이 실업자로 있음을 자각하는 것만큼 괴로운 것도 없을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때

문이다. 전북도는 울레 산(産)·관(官)·학(學)의 노력으로 취업률을 올렸다는 소식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들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솔깃해질 것이다. 기업과 행정기관과 대학이 젊은이들의 취업에 마음을 쓰고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매번 성과가 미미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그러므로 하고 싶은 말은 분명하다. 그게 한두 번 하고 그럴 게 아니라 꾸준했으면 한다. 삼자(三者)가 자주 만나서 머리를 맞대야만 밑거름 구석이라도 생길 터이다.

그래서 또 이렇게 당부한다.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에 신경을 써주었으면 한다. 일자리 창출은 항상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 좋은 마련이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실행해야지 중도에 흐지부지해버리면 안 된다. 저번에 커피플링 사업으로 성과를 보여준 점이 고무기는 해도 그게 반복 효과가 아니었는지 물어보고 싶다. 취업자가 소수에 그쳤다면 더욱 분발해야 한다. 전북도는 일자리 창출에 보통 이상의 마음을 써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갈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